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 가구 유형별 범죄피해 영향요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강 지 현**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에서는 1인 가구에 주목하여 이들의 범죄피해율을 살펴보고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1인 가구가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세부유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청년, 성인, 노인 1인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하였고, 동일한 표집틀을 사용한 제 3차(2012년 기준)와 제 4차(2014년 기준)조사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1인 가구는 2인 이상의 다른 유형의 가구(원)보다 높은 피해율을 보였으나, 1인 가구의 세부유형별 피해율을 살펴본 결과 이는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피해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다른 2인 이상의 가구와 비교하여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스스로 취약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노출의 정도가 심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범죄피해를 경험한 집단에 속할 오즈비가 높은 것은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으나, 지역관련 변수의 영향력은 1인 가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2인 이상 가구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 1인 가구의 분석에서는 청년 1인 가구의 취약성, 특히 33세 이하의 여성 1인 가구의 높은 피해가능성을 밝혔다. 또한, 아파트/오피스텔의 보호력은 청년과 노인 1인 가구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성인 1인 가구에서만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유형이 된 1인 가구의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상이한 1인 가구의 유형구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1인 가구의 유형을 생애주기를 고려한 가구주의 연령으로만 구분한 한계가 있다.

❖ 주제어 : 범죄피해조사, 1인 가구, 피해, 주거침입, 노인 1인 가구/독거노인, 청년 1인 가구

* 이 논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대한범죄학회가 주관한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2016년 12월 9일)의 발표문을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범죄학 박사,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조교수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는 가족형태 및 가구구성에 급격한 변화를 보여 2010년 이후로는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와 2인 가구 모두 4인 가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세는 매우 급격한데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 총 19,560,603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53명으로 2010년의 2.68명보다 0.15명 감소했으며, 주된 가구유형은 1인 가구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은 4인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24.6%)가, 2015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27.2%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된 것이다(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통계청 표준정의에 따르면 1인 가구는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혼의 유무를 중심으로 구별하는 독신가와 다른 개념이다. 즉, 1인 가구란 결혼여부와 무관하게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 가구원이 1인 가구이다.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 되고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취업난과 만혼, 주말부부와 기러기 가족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그 맥락을 함께 하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와 관련하여 이들의 소비형태(심영, 2002; 성영애, 2013 등)와 독거노인의 문제(예를 들면 성지미·이윤정, 2001), 건축학에서의 1인 가구 주거형태(황성은, 강부성, 박지연 2013 등) 등을 다룬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통계청 등의 패널 자료를 이용해 노인이나 2·30대 미혼 등 특정 연령층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 전반적인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신은진·안건혁, 2010)도 있다.

범죄학에서는 가구범죄피해에서 1인 가구여부를 가구특성변수로 활용한 몇몇 실증연구(예를 들면, 김지선·주익현, 2015; 박성훈, 2011)를 제외하고는 1인 가구의 범죄피해 취약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적이 없으며, 이는 개인관련 피해연구는 물론 가구대상 범죄피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는 범죄피해에 관한 실증

적 논의가 대부분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와 전미범죄피해조사(NCVS) 등 가구 설문조사 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가 가구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아이러니한 현상으로도 이해된다.

1인 가구의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지금까지 선행연구가 밝힌 개인 및 가구범죄피해에 대한 연구결과가 1인 가구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1인 가구의 구별되는 범죄 취약성 및 보호능력은 어떠한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건축학과 소비자학 등에서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여러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된 1인 가구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독거노인 등 특정 유형의 1인 가구에만 주목한 한계가 있어, 이질적이고 다양한 1인 가구의 상대적 범죄취약성에 대한 연구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1인 가구의 형성원인은 자녀 교육을 위한 기러기 가족, 취업 등으로 인한 독립,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집단별로 이질성이 상당히 큰 특성이 있다(신은진·안건혁, 2010). 특히 이러한 상이한 유형별로 경제적 속성이나 생활양식 측면에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범죄피해 연구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 예를 들어 골드세대인 1인 가구의 높은 소득수준은 높은 매력성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거형태 및 주거지역 선택에 반영될 것이다. 즉, 이들은 공간의 유지·보수가 잘 되고 각종 방범장치를 갖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을 선택하여 주거형태에 따른 보호력을 높이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한시적인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나 소득수준이 낮은 실버세대의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이나 방법이 취약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형태에 따른 보호력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노인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적은 경우가 많아 노출의 수준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특성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1인 가구의 유형과 이들의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의 취약성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이 연구에서는 1인 가구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을 시도하고 이에 따른 범죄피해의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해 보기로 하였다.

II. 배경적 논의

1. 1인가구의 특성과 유형분류

앞서 언급하였듯, 1인 가구는 2015년 현재 전체 가구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가구유형이며,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읍·면의 1인 가구 비율이 29.8%로 동지역(26.6%)보다 높았다. 또한, 연령계층별 1인 가구는 30대가 18.2%, 70세 이상 17.5%, 20대 17% 순으로 높으며, 남성 1인 가구는 30대가, 여성 1인 가구는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었다. 또한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라서는, 읍·면 지역은 70세 이상(32.1%)에서, 동지역에서는 30대(20.3%)에서 비중이 높았다. 1인 가구는 주택유형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52.1%로 높았으며, 20세 미만에서는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71.7%에 달했고, 20대와 70세 이상도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각각 58.6%와 59.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1인 가구에 관한 일부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질적인 집단특성에 따라 1인 가구를 구별하기 위해 연령과 주거비의 지불능력(직업, 소득, 임차집단)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속성을 이용하기도 하고(권주안·이유진 최혜경, 2007), 사회·경제적 속성에 따라 골드세대, 산업예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대로 구분하기도 하였다(변미리·신상영·조권중, 2008).

이 연구에서 1인 가구는 통계청과 동일하게,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가구원이 1인인 가구’로 정의하기로 한다. 형성원인과 구성원의 특성 등에 따라 이질적인 1인 가구를 구분하기 위해 인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생물학적·사회적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다양한 여러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인 가구를 구별하기로 한다. 가구의 구성이나 형태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인과 출산연령을 고려하여, 33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구분하고, 은퇴 이후의 독거노인으로 이해되는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를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구분한 1인 가구 유형별로 범죄피해의 취약성과 범죄피해의 영향요인에서 어떤 차이가 보이는지를 비교하였다.

먼저, ‘청년 1인 가구’는 33세 이하의 1인 가구로 정의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이 32.6세, 여성이 30세이며, 2015년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2.2세였다. 이러한 통계를 고려하여, 33세 이하의 1인 가구를 결혼 혹은 출산을 경험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미혼 혹은 비(非)출산 1인 거주자를 대표하는 ‘청년 1인 가구’로 규정하였다. 결혼과 출산은 인간의 생애주기를 구별하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가구 구성이나 형태의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1인 가구에서 벗어나는 주요한 요인으로도 이해된다. 또한 다수 선행연구들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가운데 대표적이고 구별되는 집단으로 20-30대의 젊은 1인 가구를 지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 1인 가구’를 평균적인 결혼과 출산 연령 이전의 33세 이하의 1인 가구로 정의하였다.

‘노인 1인 가구’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규정하였다. 노인의 기준연령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정의(65세 이상인 자)와 대부분의 국가에서 차용하고 있는 노인(elderly or older person)의 연령구분을 참고하였다. 노인이라고 규정되는 65세 이상의 연령은 대개 자녀의 양육이나 근로 등으로부터 벗어난 시기이다. 특히 이러한 노인 1인 가구는 우리사회의 1인 가구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통계청 자료에서는 70세 이상이 전체 1인 가구의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인 가구’의 특성에 주목하여 이들의 일상생활과 복지 문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들의 범죄피해에 주목한 연구는 (범죄두려움에서 노인에 주목한 것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노인 1인 가구’는 대부분 은퇴자들이 많아 소득이나 경제활동 측면에서 ‘청년 1인 가구’ 및 다른 1인 가구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성인 1인 가구’는 34-64세의 가구주를 포함하였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결혼이나 출산 등을 통해 가구의 구성이 변화하는 시기이나, 이를 경험하지 않고 혼자 가구를 구성하거나, 자녀 교육이나 직장 생활 등을 위한 가구분리 등으로 1인 가구를 구성하는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다.

2. 범죄피해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과 가구의 특성, 그리고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이나 가구의 특성에 주목하는 미시적 관점은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밝혔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범죄를 유발 혹은 억제하는 지역 환경적 특성에 주목하였다.

미시적 관점의 대표적 이론으로는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과 생활양식-노출이론(lifestyle-exposure theory), 기회이론(opportunity theory) 등이 있다. 일상활동이론은 범죄를 유발하는 상황적 요인으로 잠재적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범행대상(suitable target)과 감시의 부재(lack of guardianship)를 제시하며 이들 세 요인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존재할 때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변화로 인한 개인들의 여러 일상 활동 변화가 범죄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Cohen & Felson, 1979). 생활양식-노출이론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따라 상이한 생활양식이 범죄피해 가능성에의 노출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의 근접성에 등에 영향을 주어 개인의 범죄피해여부를 결정한다고 본다. 기회이론 또한 범죄자에게 피해자가 노출되고(exposure), 범죄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 때(proximity), 범죄로 기대되는 이익이 큰 경우(attractiveness)나 피해자를 보호할 능력(guardianship)이 떨어지는 경우에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입장이다(Cohen et al., 1981).

이러한 이론들을 토대로 개인의 매력성과 노출, 근접성, 등 다양한 개인과 가구 특성 변수들이 범죄피해의 영향요인으로 고려되었고, 매력성, 노출, 개인과 가구의 보호능력 등의 기회요인은 개인 및 가구피해와 실제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후행연구의 지적처럼 초기 연구들은 범죄기회요인의 측정을 근사변인(proxy measure)으로 활용하여 개념과 측정의 불일치로 인한 해석상의 문제점이 있었다(Bursik & Grasmick, 1993; Miethe & Meier, 1994). 예를 들면, 가구수입을 매력성의 근사변인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영향력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몇몇 연구에서는 가구수입이 늘어날수록 범죄피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petto, 1974; Miethe et al., 1987). 그러나 초창기 범죄피해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주거침입절도의 피해율이 낮아지거나(Ennis, 1967), 가구소득의 최저와 최고수준인 경우에 피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포물선 형태의 비선형관계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Cohen & Cantor, 1981). 가구특성으로 기회요인을 간접측정하지 않고 집을 비운 시간을 노출로, 가구의 정보장치 설치여부를 보호능력으로 보다 진화한 측정변인을 활용하여 가구범죄피해를 살펴본 비교적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노출과 보호능력은 가구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2011).

1인 가구의 범죄피해문제와 관련해서, 선행연구의 발견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가구의 크기, 즉 가구 구성원의 숫자에 관한 연구결과들인데, Felson과 Cohen의 1980년 연구에서는 1950년부터 1972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가구크기에 따른 가구범죄 피해율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가구크기, 즉 가구구성원의 숫자를 보호능력(guardianship)으로 이해하여 가구원이 적을수록 주거침입절도의 피해율이 높다는 점을 밝혔다. 가구범죄피해를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도 1인 가구가 2인 이상의 가구에 비해 가구범죄피해율이 높다는 점을 동일하게 지적하였다(Sampson, 1987).

그러나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자료를 활용한 박성훈(2011)에서는 1인 가구의 범죄피해율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2008년 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하여 가구범죄피해를 단순손괴, 주거침입손괴,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강도, 기타 가구대상범죄를 포함하는 비교적 광범위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관련 요인들만 살펴본 모형에서는 가구주의 성별이나 연령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구의 수입, 1인 가구 여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가구수입의 영향은 가구관련 요인과 지역사회 특성요인을 함께 고려했을 때에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으나 1인 가구의 영향력은 미미하게나마 그대로 남아, 여전히 1인 가구의 가구범죄피해율이 더 낮았다. 이후에 동일한 조사의 2010년과 2012년의 범죄피해자료를 활용한 김지선·주익현(2015)의 연구에서도 1인 가구는 2인 이상의 가구에 비해 가구범죄피해의 발생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1인 가구가 보호능력이 떨어지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등 그 위험요인을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구소득으로 인해 범행대상으로서

의 매력성이 낮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그러나 1인 가구의 개인범죄피해는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주거침입피해만을 살펴보았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범죄를 유발 혹은 억제하는 지역 환경적 특성에 주목한 대표적 이론은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한 ‘사회해체이론’인데 여기에서는 지역사회의 빈곤이나 인종적인 이질성, 거주불안정성 등의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지역사회의 해체와 범죄율을 높인다고 본다(Shaw & McKay, 1942). 이후 수정된 사회해체론 등이 대두되면서 지역주민간의 사회적 유대와 결속 및 이를 통한 지역의 범죄통제 역량을 의미하는 집합적 효용성 등의 개념이 제시되기 시작하였고, 실증연구를 통해 이러한 집합효용성이 실제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문제행위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범죄피해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Bursik & Grasmick, 1993; Sampson & Groves, 1989).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지역특성에 따라 가구범죄피해율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해당 지역사회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이 낮은 등 주거안정성(residential stability)이 떨어질수록,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가구범죄피해율이 높았다.

요약하면, 가구범죄피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가구관련 특성과 지역수준 요인의 영향력을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자료를 통해 검증하였고,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주거형태(아파트 및 오피스텔거주)가 가구범죄피해의 예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주장하였다(김지선·주익현, 2015; 박성훈, 2011). 그러나, 가구범죄피해에 대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1인 가구의 비중 증가가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급증한 1인 가구의 범죄취약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인 가구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범죄피해율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밝힌 가구범죄피해의 두 결정요인들, 가구주 개인 및 가구특성과 지역특성이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인 가구의 가구대상 범죄와 개인대상 범죄는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점과 선행연구에서는 개인피해경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의 부재를 인식하여, 1인 가구가 경험

하는 개인과 가구대상 피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인 가구 혹은 1인 가구주에 대한 범죄피해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이들의 구별되는 특성을 반영한 범죄피해의 취약성요인에 관한 분석모형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밝힌 일반적인 가구 혹은 개인피해의 영향요인을 검토하여 이들이 1인 가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까지 선행연구가 밝힌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결과가 1인 가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개인과 가구 수준의 범죄피해 취약성과 지역특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므로(Miehe & McDowall, 1993; Lauritsen, 2001; Rountree & Land, 1996; Wilcox et al., 2007; Xie & McDowall, 2008) 이 연구에서도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개인 및 가구관련 특성과 지역수준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가 가진 두 가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의 범죄피해율이 어떠한지, 특히 1인 가구의 구별되는 유형들, ‘청년 1인 가구’, ‘성인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의 범죄피해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1인 가구는 2인 이상의 가구와 비교하여 범죄피해 영향요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유형별 1인 가구의 범죄피해 영향요인도 비교분석해 본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구별되는 유형에 따라 공통적으로 혹은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본다.

이를 위해 실증적 선행연구가 밝힌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개

인 및 가구관련 특성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고, 개인이 경험한 전체피해 경험과 주거침입피해를 구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연구의 분석을 위해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하였고, 제 3차(2012년 기준)와 제 4차(2014년 기준)조사를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4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던 범죄피해조사는 피해보고율을 높이고, 보다 상세히 각 피해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에 전면 개편되었다. 이후 통계청의 조사승인을 받아 국가 통계(승인번호 제 40301호)로서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수집을 목표로 2년마다 실시되고 있다(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개편 이후 실시된 총 4 차례의 범죄피해조사는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의 전체적인 틀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일부 조사표의 내용과 범죄피해유형의 판별식 등에 변화가 있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제 4차(2014년 기준)조사에서는 제 3차(2012년 기준)조사의 조사내용과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였기에(최수형·김지영·황지태·박희정, 2015), 이 연구에서는 제 3차와 제 4차 조사를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두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기준 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이고 표집틀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 및 아파트 조사구’로 동일하다. 또한, 두 조사 모두에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표집틀로 사용하였다. 제 3차(2012년 기준)과 제 4차(2014년 기준)조사에서 조사표본수는 각각 6,300가구의 13,317명과 6,960가구의 14,976명이었는데, 2인 이상의 가구와 1인 가구의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제 3차와 제 4차 조사자료를 통합한 총 13,260가구의 28,293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1인 가구의 유형별 범죄피해율 및 영향요인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1인 가구(주)만을 포함하였는데, 제 3차와 제 4차 조사에서 각각 1,566가구와 1,551가구를 합한 총 3,117명의 1인 가구(주)로 분석자료를 구성하였다.

2) 주요변인의 측정과 자료분석 방법

(1) 종속변인의 구성

연구의 종속변수는 범죄피해 여부인데 개인에 초점을 두어 개인의 전체피해를 살펴보고 추가로 주거침입피해를 분석하기로 한다. 제 3차(2012년 기준)와 제 4차(2014년 기준)조사에서는 가구와 개인으로 구분하여 범죄피해를 분석하던 이전의 방식이 가진 문제점-즉 전체 범죄피해 발생률을 추정하는 난점과 개인피해에 가구가 중치를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김은경 외, 2013:105, 최수형 외, 2015:100) 개인피해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필요시 신체피해와 재산피해로 구분하였고, 별도로 주거침입범죄를 재분석하였다.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주이자 유일한 가구원인 1인의 가구대상 범죄와 개인대상 범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구별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1인 가구를 구성하는 개인의 범죄피해를 기준으로 살펴본 후, 별도로 주거침입 범죄를 분석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개인의 범죄피해에는 신체범죄피해(강도, 폭행, 성폭행)와 재산범죄피해(절도, 사기, 손괴 등)를 모두 포함하여 구성하고, 이 연구에서는 전체 개인피해로 칭하기로 한다. 주거침입범죄에는 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손괴, 단순 주거침입을 포함하는 주거침입의 모든 피해유형을 포함하였다. 전체 개인피해와 주거침입피해 모두 피해경험 유무로 종속변수를 구성하였고, 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변수값=1)와 그렇지 않은 경우(변수값=0)으로 나눈 이분형 변수로 각각 구성하였다.

(2) 개인관련 변인

‘일상활동이론’과 ‘생활양식이론’에서 범죄피해의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노출, 매력성, 감시의 부재,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와의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Miethe & Meier, 1990) 개인관련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인을 구성하였다. 먼저 개인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작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저녁 10시 이후에 집에 들어갔습니까?”, “귀하는 작년(2014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갔습니까?”의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573$). 이 문항들에 대한 응답은 ‘거의 매일(1)’, ‘일주일에 2-3일(2)’, ‘일주일에 하루(3)’, ‘보름에 하루(4)’, ‘한 달에 하루(5)’, ‘거의 또는 전혀 없음(6)’으로 측정되었고, 이를 역코딩하여 합산한 값을 활용하였다. 노출을 줄일 수 있는 회피행동의 정도를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의 네 문항에 대한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 응답값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Cronbach's $\alpha=.855$). 취약성 인식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라는 문항에 대한 5점 척도 응답값을 사용하였다.

피해대상의 특성으로 인해 범죄자가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의 정도를 의미하는 매력성은 ‘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하는 편이다’, ‘평소 유명 브랜드 제품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의 두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응답값,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Cronbach's $\alpha=.871$). 이와 함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을 고려하였는데, 교육수준은 ‘무학(0)’부터 ‘대학원 이상(6)’으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3) 가구관련 변인

주거침입 피해의 영향요인으로 고려될 가구관련 취약성 요인으로는 가구의 노출과 주택유형(아파트/오피스텔 여부), 주택소유 여부, 주거지에서의 영업활동 여부, 가구의 소득수준, 방범수준과 방범활동 등이 포함되었다. 가구의 노출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작년 한 해 동안, 귀하와 가구원이 모두 외출하거나 출근하여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였습니까?’의 문항에 대한 응답값, ‘거의 비우지 않았음(1)’, ‘4시간 미만(2)’, ‘4-8시간(3)’, ‘8-12시간(4)’, ‘12시간 이상(5)’을 활용하였다. 가구의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1)’, ‘100-200만원(2)’, ‘200-300만원(3)’, ‘300-400만원(4)’, ‘400-500만원(5)’, ‘500-600만원(6)’, ‘600-700만원(7)’, ‘700-1000만원(8)’, ‘1000만

원 이상(9)'으로 측정하였다. 가구의 방법활동은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에 대한 5점 척도 응답값,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을 사용하였다. 가구방법수준은 가구의 방법장치와 감시기능의 개수로 측정하였는데 '현관이나 창문에 이중자물쇠 등 특수 잠금장치가 있다', '창문이나 비상구 등에 방범창(쇠창살)이 있다', '비디오폰이나 현관문에 들여다보는 구멍이 있다', '출입카드를 사용한다', '도난 경보시스템이 있다', '경비원이 있다',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CCTV 등 감시카메라가 있다',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외부 조명이 있다'의 8개 항목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4) 지역특성 요인

거주지역과 관련한 취약성 요인으로는 비공식사회통제와 사회결속으로 측정한 집합 효용감,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로 구분하여 측정한 지역무질서, 그리고 지역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이 고려되었다. 비공식 사회통제수준은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의 세 문항에 대한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 응답값을 합산하였다(Cronbach's $\alpha=.643$). 사회적 결속은 지역주민들과의 유대와 결속의 정도를 의미하는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의 네 문항에 대한 5점 척도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931$). 물리적 무질서는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의 세 문항에 대한 5점 척도 응답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고(Cronbach's $\alpha=.711$), 사회적 무질서는 '기초 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세 문항에 대한 5점 척도 응답값을 합산하였다(Cronbach's $\alpha=.768$). 지역범죄의 추세인식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매우 감소할 것(1)', '약간 감소할

것(2)', '변화 없을 것(3)', '약간 증가할 것(4)', '매우 증가할 것(5)'으로 측정하였다.

IV. 분석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아래 <표 1>은 제 3차와 4차 조사를 합한 전체 응답자의 자료를 토대로 가구유형별 피해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구유형별로 피해율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주거침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조사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전체범죄피해 여부로 측정한 전체범죄피해율을 보면, 28,293명의 전체범죄피해율은 3.7%였으나 1인 가구피해율은 5.4%로 이보다 훨씬 높았다. 범죄유형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신체피해율과 재산피해율, 주거침입 피해율도 각각 0.3%와 4.8%, 1.9%로 전체의 0.2%와 3.3%, 1.6%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1>참고)¹⁾.

<표1> 가구유형별 피해율-제 3차와 4차 조사 전체 자료

			가구 유형								전체	χ^2
			1인 가구	부부	부부+ 자녀	한부모 +자녀	3세대 이상	형제자 매로만	조부모+ 손자녀	비혈연/ 기타		
전체 피해	있음	N	169	174	507	101	55	8	10	17	1041	51.476 ***
		%	5.4%	2.6%	3.8%	3.9%	3.2%	3.7%	5.6%	4.7%	3.7%	
	없음	N	2948	6418	12997	2504	1669	206	169	341	27252	
		%	94.6%	97.4%	96.2%	96.1%	96.8%	96.3%	94.4%	95.3%	96.3%	
신체 피해	있음	N	10	8	19	5	1	0	2	1	46	17.898 *
		%	0.3%	0.1%	0.1%	0.2%	0.1%	0.0%	1.1%	0.3%	0.2%	
	없음	N	3107	6584	13485	2600	1723	214	177	357	28247	

1) 가구유형별 피해에서 1인 가구와 함께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유형의 피해율이 전체의 평균 혹은 다른 가구유형의 피해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집단의 가구수입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박성훈, 2011). 다만, 이 연구의 목적은 1인 가구의 분석에 있으므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의 높은 피해율은 여기에서는 분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구 유형									χ^2
			1인 가구	부부	부부+ 자녀	한부모 +자녀	3세대 이상	형제자 매로만	조부모+ 손자녀	비혈연/ 기타	전체	
재산 피해	있음	%	99.7%	99.9%	99.9%	99.8%	99.9%	100%	98.9%	99.7%	99.8%	43,671 ***
		N	149	156	444	91	49	8	8	16	921	
	없음	%	4.8%	2.4%	3.3%	3.5%	2.8%	3.7%	4.5%	4.5%	3.3%	
		N	2968	6436	13060	2514	1675	206	171	342	27372	
주거 침입 +	있음	%	95.2%	97.6%	96.7%	96.5%	97.2%	96.3%	95.5%	95.5%	96.7%	6,047
		N	58	54	67	15	7	1	3	2	207	
	없음	%	1.9%	1.6%	1.4%	1.3%	1.5%	0.9%	3.6%	1.5%	1.6%	
		N	3059	3294	4735	1183	465	10	80	132	13053	
		%	98.1%	98.4%	98.6%	98.7%	98.5%	99.1%	96.4%	98.5%	98.4%	

*** p<0.001, **p<0.01, *p<0.05

+ 주거침입은 제 3차와 4차 조사를 합한 전체 13,260가구를 기준으로, 전체피해/신체피해/재산피해는 전체 28,293명 개인을 기준으로 계산함.

앞서 <표1>에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1인 가구의 피해율, 특히 개인의 재산피해율이 전체 가구에 비해 높은 것을 보았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율을 보이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개인/가구/지역관련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해보았다.

먼저, 2인 이상 가구원과 1인 가구원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본 기술통계 결과는 <표2-1>과 같다.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원과 비교하여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교육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 가구의 91.6%가 미혼,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었으나 2인 이상 가구원은 70.6%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차이가 있었다. 개인소득이 없는 1인 가구도 47.5%로 2인 이상 가구원의 42.2% 보다는 높았고, 1인 가구의 평균 연령도 56.627세로 2인 이상 가구원의 45.942보다 훨씬 높았다. 2인 이상 가구원과 비교하여 1인 가구의 개인 매력과 노출 평균값은 높았으나 회피행동 평균값은 낮았으며, 취약성 인식정도는 근소한 차이로 낮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2-1〉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개인관련 변수들

변수	내용	전체		2인 이상 가구원		1인 가구원		χ^2/t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성	13458	47.6	12294	48.8	1164	37.3	146,781***
	여성	14835	52.4	12882	51.2	1953	62.7	
교육 수준	무학	1308	4.6	770	3.1	538	17.3	1829,383***
	초등학교	3178	11.2	2491	9.9	687	22.0	
	중학교	3241	11.5	2920	11.6	321	10.3	
	고등학교	9967	35.2	9242	36.7	725	23.3	
	대학교(4년제 미만)	4184	14.8	3875	15.4	309	9.9	
	대학교(4년제 이상)	5833	20.6	5363	21.3	470	15.1	
	대학원 이상	582	2.1	515	2.0	67	2.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18042	63.8	17781	70.6	2856	91.6	4652,400***
	배우자 있음	10251	36.2	7395	29.4	261	8.4	
직업 유무	직업 없음	12096	42.8	10616	42.2	1480	47.5	32,006***
	직업 있음	16197	57.2	14560	57.8	1637	52.5	
연령		평균=47,119 SD=18,256, 14-100		평균=45,942 SD=17,687 17-100		평균=56,627 SD=19,921 15-95		28,583***
개인 매력		평균=4,167 SD=1,773 2-10		평균=4,228 SD=1,766 2-10		평균 = 3,681 SD=1,752 2-10		-16,306***
개인 노출		평균=4,325 SD=2,440 2-12		평균=4,353 SD=2,416 2-12		평균 = 4,098 SD=2,615 2-12		-5,165***
개인 회피		평균=9,189 SD=3,675 4-20		평균=9,228 SD=3,675 4-20		평균 = 8,871 SD=3,662 4-20		-5,111***
취약성 인식		평균=2,188 SD=0,848 1-5		평균=2,190 SD=0,838 1-5		평균 = 2,176 SD=0,923 1-5		-0,819
계(명)		28,293		25,176		3,117		

***p <0.001, **p <0.01, *p <0.05

가구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기술통계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2-2>와 같다.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하여 가구소득이 낮았는데,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비율이 1인 가구는 54.3%에 달했으나 2인 이상 가구는 12.8%에 불과하였다.

주거지에서 영업을 하는 비율은 2인 이상 가구가 4.5%로 1인 가구의 3.4%에 비해 높았으며, 집을 비우는 시간으로 측정한 가구노출도 1인 가구가 더 높았다. 특히, 12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가구의 비율이 1인 가구는 9.6%인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4.2%에 불과하였다. 1인 가구의 31.3%와 2인 이상 가구의 50.6%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아파트/오피스텔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고,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도 1인 가구는 46.0%이나 2인 이상 가구는 68.9%로 높은 차이가 있었다. 1인 가구의 가구방법 수준은 2인 이상 가구보다 낮은 편이었으나, 가구방법활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2-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가구 관련 변수들

변수	내용	전체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χ^2/t
		빈도	%	빈도	%	빈도	%	
가구 소득 (월평균)	100만원 미만	2990	22.6	1298	12.8	1692	54.3	2902.007***
	100-200만원 미만	2320	17.5	1649	16.3	671	21.5	
	200-300만원 미만	2567	19.4	2095	20.7	472	15.1	
	300-400만원 미만	2301	17.4	2140	21.1	161	5.2	
	400-500만원 미만	1489	11.2	1435	14.1	54	1.7	
	500-600만원 미만	899	6.8	867	8.5	32	1.0	
	600-700만원 미만	329	2.5	315	3.1	14	0.4	
	700-1,000만원 미만	270	2.0	257	2.5	13	0.4	
	1,000만원 이상	94	0.7	86	0.8	8	0.3	
주거지 영업	영업하지 않음	12699	95.8	9688	95.5	3011	96.6	6.929**
	영업 함	561	4.2	455	4.5	106	3.4	
가구 노출	거의 비우지 않음	2393	18.0	1881	18.5	512	16.4	237.066***
	4시간 미만	3092	23.3	2498	24.6	594	19.1	
	4시간 - 8시간 미만	4008	30.2	3180	31.4	828	26.6	
	8시간 - 12시간 미만	3044	23.0	2161	21.3	883	28.3	
	12시간 이상	723	5.5	423	4.2	300	9.6	
아파트	그 외 주택/다세대 등	7148	53.9	5006	49.4	2142	68.7	359.869***
	아파트/오피스텔 거주	6112	46.1	5137	50.6	975	31.3	
주택 소유	자택소유 아님	4833	36.4	3151	31.1	1682	54.0	539.623***
	자택소유	8427	63.6	6992	68.9	1435	46.0	
가구 방법		평균=3,658		평균=3,900		평균 = 2,873		-24.113***

변수	내용	전체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χ^2/t
		빈도	%	빈도	%	빈도	%	
수준		SD=2,211 범위 0-8		SD=2,208 0-8		SD=2,033 0-8		
가구 방법 활동		평균=3,646 SD=1,108 범위 1-5		평균=3,627 SD=1,103 범위 1-5		평균 = 3,802 SD=1,134 범위 1-5		-1,203
계(가구)		13,260		10,143		3,117		

***p <0.001, **p <0.01, *p <0.05

마지막으로 지역특성 관련한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아래 <표2-3>과 같다. 지역 특성관련 변수의 기술통계는 각 가구가 속한 읍·면·동의 지역단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는데, 개인의 응답값을 기초로 동별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표2-3>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지역특성 변수들

변수	전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비공식 사회통제	10,006	1,344	5,65	14,29
사회 결속	11,024	2,809	4,90	20
물리적 무질서	7,124	1,588	3	12,92
사회적 무질서	6,967	1,606	3	12,50
지역범죄 추세	3,092	0,334	1,67	4,43
계*	1168			

* 각 가구가 속한 읍·면·동 지역단위를 기준으로 산출된 값으로, 전체가구가 속한 1,168개 읍·면·동 지역에 대한 정보를 나타냄.

이 연구의 주요목적이 유형별 1인 가구의 취약성 비교분석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인 가구 유형별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3>과 같다.

전체 개인범죄 피해율은 ‘청년 1인 가구’가 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인 1인 가구’ 6.4%, ‘노인 1인 가구’는 3.2%로 가장 낮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신체피해와 재산피해로 구분해 본 결과, 이러한 전체 개인범죄 피해율은 신체피해율의 차이가 아닌 재산범죄 피해율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침입 피해율에서는 1인 가구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청년 1인 가구’의 1.8%, ‘성인 1인 가구’의 2.0%, ‘노인 1인 가구’의 1.7%가 지난 1년간 주거침입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인 가구 전체에서 여성비율이 62.7%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보았는데, 유형별로 구분한 1인 가구는 성별에서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청년 1인 가구’는 42.1%만이 여성으로 남성 1인 가구가 더 많았으나, ‘성인 1인 가구’의 52.2%와 ‘노인 1인 가구’의 81.4%가 여성이었다. 즉, ‘청년 1인 가구’는 남성이 더 많은 반면, ‘노인 1인 가구’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은 차이가 보였다. 또한, ‘노인 1인 가구’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무직자와 가정주부 등 개인소득이 없는 사람의 비율도 73.0%로 청년(38.0%)과 성인(23.8%)보다 월등히 높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매력성과 노출을 보인 차이가 있었다.

가구관련 특성에서도 유형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노인 1인 가구’는 소득수준이 낮은 비중이 훨씬 더 높았고, 집을 비우는 시간이 훨씬 짧았으며, 자택소유 비율이 72.8%로 ‘청년 1인 가구(6.8%)’, ‘성인 1인 가구(36.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아파트/오피스텔 거주비율은 ‘성인 1인 가구’가 3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년(31.5%)이었으며 노인은 25.5%로 가장 낮았다. 또한, ‘성인 1인 가구’는 주거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6.9%로 청년과 노인의 0.8%와 1.4%에 비해 높은 차이가 있었다. 방범장치와 감시기능의 개수로 측정한 가구방범 수준이 ‘청년 1인 가구’는 평균 3.68개인데 비해 ‘성인 1인 가구’는 3.21개, ‘노인 1인 가구’는 2.21개에 불과하였다. 가구 방법활동은 ‘성인 1인 가구’가 3.860으로 가장 높았고, ‘노인 1인 가구’ 3.802, ‘청년 1인 가구’ 3.795순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3〉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1인 가구 유형별

변수	내용	청년 1인 가구 (%)	성인 1인 가구 (%)	노인 1인 가구 (%)	χ^2/F
개인범죄 피해	피해경험 있음	8.4	6.4	3.2	24.171***
	피해경험 없음	91.6	93.6	96.8	
신체범죄 피해	피해경험 있음	0.8	0.2	0.2	3.827
	피해경험 없음	99.2	99.8	99.8	
재산범죄 피해	피해경험 있음	6.9	5.8	2.9	18.826***
	피해경험 없음	93.1	94.2	97.1	
주거침입 피해	피해경험 있음	1.8	2.0	1.7	0.456
	피해경험 없음	98.2	98.0	98.3	

변수	내용	청년 1인 가구 (%)	성인 1인 가구 (%)	노인 1인 가구 (%)	χ^2/F
성별	남성	57.9	47.8	18.6	361.848***
	여성	42.1	52.2	81.4	
교육수준	무학	0.2	1.9	38.8	2173.547***
	초등학교	0.5	13.2	39.8	
	중학교	0.5	14.6	10.9	
	고등학교	21.6	41.3	8.0	
	대학교(4년제 미만)	26.2	11.9	0.7	
	대학교(4년제 이상)	46.4	14.2	1.6	
	대학원 이상	4.6	3.0	0.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8	16.0	3.7	144.790***
	배우자 없음	96.2	84.0	96.3	
직업 유무	직업 없음	38.0	23.8	73.0	659.818***
	직업 있음	62.0	76.2	27.0	
연령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균=26.459 (SD=4.610, 17-33)	평균=50.635 (SD=8.810, 34-64)	평균=75.730 (SD=6.479, 65-100)	9187.131***
개인매력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균 = 4.800 (SD=1.748, 2-9)	평균 = 3.932 (SD=1.770, 2-10)	평균 = 2.947 (SD=1.362, 2-9)	291.993***
개인노출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균 = 6.540 (SD=2.291, 2-12)	평균 = 4.761 (SD=2.648, 2-12)	평균 = 2.394 (SD=1.182, 2-11)	881.262***
개인회피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균 = 8.954 (SD=3.696, 4-20)	평균 = 8.847 (SD=3.660, 4-20)	평균 = 8.855 (SD=3.649, 4-20)	0.121
취약성 인식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균 = 2.208 (SD=0.918, 1-5)	평균 = 2.180 (SD=0.903, 1-5)	평균 = 2.157 (SD=0.942, 1-5)	0.528
가구소득 (월평균)	100만원 미만	30.7	30.3	86.4	1030.272***
	100-200만원 미만	29.2	29.8	10.7	
	200-300만원 미만	28.2	23.4	1.8	
	300-400만원 미만	8.3	8.5	0.8	
	400-500만원 미만	2.0	3.5	0.1	
	500-600만원 미만	0.8	2.2	0.1	
	600-700만원 미만	0.5	0.8	0.1	
	700-1,000만원미만	0.3	0.8	0.1	
주거지 영업	1,000만원 이상	-	0.7	-	62.052***
	영업하지 않음	99.2	93.1	98.6	
가구노출	영업 함	0.8	6.9	1.4	943.776***
	거의 비우지 않음	2.5	11.5	27.2	
	4시간 미만	4.1	10.7	33.3	
	4- 8시간 미만	23.8	24.9	29.4	
	8-12시간 미만	49.5	41.0	7.4	
아파트/ 오피스텔	12시간 이상	20.1	11.9	2.8	45.223***
	그 외 주택/다세대	68.5	62.3	74.5	
주택소유 여부	아파트/오피스텔	31.5	37.7	25.5	795.712***
	자택소유 아님	93.2	63.9	27.7	
	자택소유	6.8	36.1	72.8	

변수	내용	청년 1인 가구 (%)	성인 1인 가구 (%)	노인 1인 가구 (%)	χ^2/F
가구 방법수준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균 = 3,682 (SD=1,690, 0-8)	평균 = 3,205 (SD=1,979, 0-8)	평균 = 2,207 (SD=2,019, 0-8)	142.737***
가구 방법 활동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균 = 3,795 (SD=1,050, 1-5)	평균 = 3,860 (SD=1,094, 1-5)	평균 = 3,802 (SD=1,134, 1-5)	2.218
계		N=606	N=1,183	N=1,328	

***p <0.001, **p <0.01, *p <0.05

2.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범죄피해 영향요인 분석

먼저 전체 1인 가구를 2인 이상 가구(원)와 비교분석하여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2인 이상 가구(원)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체 개인범죄 피해를 먼저 분석하고 주거침입피해를 분석하였고, 종속변인인 범죄피해 경험유무가 이항형태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로짓분석을 활용하였다. (<표4> 참고). 영향요인으로 개인수준의 변수와 지역수준의 변수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다수준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 수준을 지역단위로 하는 다수준 분석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나, 연구의 주요 대상인 3,117명의 1인 가구가 거주하는 936개의 읍·면·동이 최소 1명에서 최대 21명이며 동별 평균이 3.331명(표준편차 2.471)에 그쳤다. 지역단위별 사례수가 지나치게 적어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인수준의 요인과 지역수준의 요인을 다수준분석이 아닌 다변량 로짓분석을 통해 변수들을 상호통제한 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하고, 지역수준의 변수들은 개인이 속한 지역단위인 읍·면·동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전체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해보면, 교육수준과 개인 노출, 그리고 취약성 인식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원)에 공통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 노출정도가 심할수록, 스스로 범죄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식할수록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고, 이는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별과 직업유무는 2인 이상 가구(원)에서만 유의한 변수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개인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범

죄피해를 경험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지역특성의 영향력도 차이를 보였는데, 거주민이 평가하는 동네의 비공식 사회통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결속이 낮을수록,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피해를 경험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2인 이상 가구(원)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지역특성 변수는 1인 가구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주거침입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해 본 결과, 취약성 인식정도가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약성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주거침입 피해를 경험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가구주 연령의 부정적인 효과와 아파트/오피스텔의 보호력은 2인 이상 가구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동네의 비공식 사회통제 수준과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미치는 정(+)의 영향과 사회결속이 가지는 부(-)적 영향은 2인 이상 가구에서만 나타났다.

〈표4〉 범죄피해 영향요인 분석-2인 이상 가구(원)과 1인 가구의 비교

		개인범죄 피해						주거침입 피해					
		전체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원		1인 가구원		전체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통제	성별(여)	0.279	1.322***	0.263	1.300**	0.271	1.311	0.142	1.152	-0.072	0.930	0.694	2.001
	연령	0.001	1.001	0.001	1.001	0.004	1.004	-0.010	0.990	-0.022	0.978**	0.016	1.016
	교육수준	0.106	1.112**	0.081	1.085*	0.252	1.286**	-0.035	0.966	-0.108	0.898	0.165	1.179
개인 특성	직업 있음	0.189	1.208**	0.180	1.197*	0.186	1.205						
	개인 매력	-0.012	0.988	-0.004	0.996	-0.045	0.956						
	개인 노출	0.068	1.071***	0.063	1.065***	0.092	1.097*						
	개인 회피	0.007	1.007	0.010	1.010	-0.008	0.993						
	취약성 인식	0.226	1.254***	0.143	1.154**	0.569	1.767***	0.348	1.417***	0.225	1.252*	0.572	1.771***
	1인 가구	0.484	1.622***					0.071	1.074				
가구 특성	가구소득							0.010	1.010	-0.003	0.997	0.101	1.106
	거주지 영업							0.257	1.294	0.191	1.210	0.462	1.587
	가구노출							-0.058	0.944	-0.070	0.932	0.058	1.060
	가구 범범 수준							-0.084	0.920	-0.052	0.949	-0.178	0.837
	가구 범범 활동							0.065	1.067	-0.013	0.987	0.204	1.226

		개인범죄 피해						주거침입 피해					
		전체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원		1인 가구원		전체		2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아파트/오피스텔							-1,058	0,347***	-1,182	0,307***	-0,879	0,415
	주택 소유							0,251	1,285	0,297	1,345	0,087	1,091
지역 특성	비공식 사회통제	0,141	1,151***	0,165	1,180***	0,004	1,004	0,098	1,103	0,176	1,192*	-0,047	0,954
	사회결속	-0,085	0,918***	-0,104	0,902***	0,012	1,012	-0,094	0,910*	-0,122	0,885*	-0,061	0,941
	물리적 무질서	0,127	1,135***	0,128	1,137***	0,120	1,127	0,190	1,209*	0,210	1,233**	0,127	1,135
	사회적 무질서	-0,044	0,957	-0,036	0,965	-0,062	0,940	-0,109	0,897	-0,115	0,891	-0,078	0,925
	지역범죄 추세	0,088	1,092	0,113	1,119	-0,001	0,999	0,268	1,308	0,365	1,441	0,109	1,115
	상수항	-6,872	0,001***	-6,320	0,002***	-6,391	0,002***	-5,632	0,004***	-4,897	0,007***	-7,398	0,001**
chi square		222,871***		136,337***		89,733***		124,539***		93,213**		53,362**	
-2 log likelihood		8696,013		7441,928		1224,112		2008,333		1461,294		523,717	
Nagelkerke R		0,029		0,021		0,083		0,063		0,064		0,100	

***p <0.001, **p <0.01, *p <0.05

3. 1인 가구의 유형별 비교분석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질적인 1인 가구의 유형별 특성비교를 위해 청년, 성인, 노인 1인 가구의 유형별로 범죄피해의 영향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였다. 전체 개인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1인 가구 세부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표5> 참고) ‘청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에서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 청년의 경우, 교육수준, 취약성 인식,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도 있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식할수록, 거주지역의 물리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무려 2.2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xp(0.822)=2.276$). 특히, 이러한 성별의 유의한 영향력, 다시 말해 여성의 높은 범죄피해 가능성은 청년 1인 가구에서만 유의하였다²⁾.

2) 심사자의 지적과 같이 여성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피해가능성은 이들의 높은 성폭력 피해

취약성 인식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고려된 바 있어 이 연구에서도 영향요인으로 포함하였다.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성 인식의 효과는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먼저, 실제 개인의 취약성 인식정도에 따라 피해를 당할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으나, 역으로 범죄피해의 경험이 취약성 인식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또한,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 예를 들면 운동 및 방어능력과 거주지역의 동네특성 등이 개인의 주관적인 취약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성인 1인 가구’에서는 회피행동을 많이 할수록, 거주하는 지역사회 사회의 결속이 강할수록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소 상반된 것이다. 밤에 혼자 택시를 타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피해 다니는 이러한 회피행동은 그러나 범죄피해의 결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피행동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정(+)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결속이 미치는 영향 또한, 지역의 사회적 결속이나 유대 등은 오히려 유대를 필요로 하는 소위 불리한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Swaroop & Morenoff, 2006). 즉, 사회적 결속이 반드시 환경적으로 유리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결속이 강할수록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이해된다. ‘노인 1인 가구’에서는 취약성 인식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는데, 스스로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실제로 범죄피해자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5〉 개인범죄피해의 영향요인 로짓분석-1인 가구 유형별 분석

		유형별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성인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b	Exp(B)	b	Exp(B)	b	Exp(B)
통제	성별(여)	0,822	2,276*	0,313	1,395	-0,416	0,660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간과 성추행의 성폭력 피해를 제외하고 분석해 보았다. 성폭력 피해를 제외한 경우에도 여성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피해가능성은 동일하게 나타났고, 이에 표 5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포함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유형별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성인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개인 특성	연령	-0.006	0.994	0.028	1.015	0.034	1.035
	교육수준	0.415	1.514*	0.199	1.222	0.228	1.257
	직업 있음	0.149	1.160	0.639	0.739	-0.163	0.850
	개인 매력	-0.005	0.995	-0.078	1.105	0.049	1.050
	개인 노출	0.063	1.065	0.099	0.921	0.139	1.149
	개인 회피	-0.097	0.908	0.007	1.121*	0.031	1.031
	취약성 인식	0.450	1.568**	0.620	0.987	0.468	1.596**
지역 특성	비공식사회통제	-0.140	0.869	0.090	0.826	-0.066	0.936
	사회결속	0.121	1.128	0.040	1.912***	0.094	1.099
	물리적 무질서	0.296	1.345**	0.058	0.915	0.114	1.121
	사회적 무질서	-0.193	0.825	-0.029	1.077	-0.027	0.973
	지역범죄 추세	0.394	1.482	0.065	1.075	0.479	1.615
상수항		-7.108	0.001***	-9.522	0.001***	-10.334	0.000***
chi square		39,233**		29,898**		22,633***	
-2 log likelihood		253,642		320,139		350,141	
Nagelkerke R		0.168		0.110		0.069	

***p <0.001, **p <0.01, *p <0.05

세부 유형별 1인 가구의 주거침입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6>과 같다. 먼저 ‘청년 1인 가구’에서는 성별과 가구방범수준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가구방범수준이 낮을수록, 주거침입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에게 비해 주거침입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11.226배 높았다. 그러나 ‘청년 1인 가구’에서는 성인과 노인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취약성 인식과 연령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1인 가구’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스스로 범죄에 취약하다고 느낄수록 주거침입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거형태와 비교하여 주거침입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무려 86.6%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오피스텔의 보호력은 ‘성인 1인 가구’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노인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연령과 취약성 인식정도, 집을 비우는 시간으로 측정된 가구노출, 그리고 비공식 사회통제의 수준이 유의하였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스스로 범죄에 취약하다고 느낄수록, 집을 비우는 노출시간이 길

수록 주거침입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지역의 비공식사회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주거침입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주거침입피해의 영향요인 로짓분석-1인 가구 유형별 분석

		유형별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성인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b	Exp(B)	b	Exp(B)	b	Exp(B)
통제	성별(여)	2.418	11,226*	0.045	1,046	0.752	2,122
	연령	0.032	1,033	0.070	1,072*	0.079	1,082*
	교육수준	0.773	2,167	0.121	1,129	-0.097	0.907
가구 특성	취약성 인식	0.366	1,442	0.667	1,949**	0.631	1,880**
	가구소득	-0.510	0,600	0.228	1,256	0.278	1,321
	거주지 영업	-13.874	0,000	0.300	1,349	-16.558	0,000
	가구노출	-0.120	0,887	-0.357	0,700	0.619	1,857**
	가구 방법 수준	-0.455	0,634*	0.053	1,054	-0.155	0,856
	가구 방법 활동	0.178	1,195	0.403	1,496	0.146	1,157
	아파트/오피스텔	1,002	2,722	-2,012	0,134*	-17,097	0,000
	주택 소유	-16,156	0,000	0,099	1,104	0,601	1,824
	비공식 사회통제	0,010	1,010	0,267	1,306	-0,373	0,689*
지역 특성	사회결속	-0,340	0,712	-0,190	0,827	0,053	1,055
	물리적 무질서	-0,182	0,833	0,354	1,424	-0,009	0,991
	사회적 무질서	-0,038	0,963	0,069	0,934	0,001	1,001
	지역범죄 추세	0,450	1,568	-1,348	0,260	1,693	5,437*
상수항		-5,917	,003	-9,269	,000***	-16,672	,000***
chi-square		24,195*(0,085)		44,114***		48,051***	
-2 log likelihood		85,802		190,488		184,121	
Nagelkerke R		0,236		0,203		0,222	

***p < 0.001, **p < 0.01, *p < 0.05

V. 논의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1인 가구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특히 이질적인 1인 가구의 유형별로 취

약성을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의 전체 피해율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높은 피해율은 전체범죄피해율은 물론, 신체피해와 재산피해율, 주거침입 피해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재산피해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1인 가구 전체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율을 보였으나, 세부 유형별로 1인 가구를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노인 1인 가구의 범죄피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나 청년 1인 가구의 피해율은 전체평균보다 높았다. 즉,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피해율이 전체 1인 가구의 범죄피해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이해된다. 이처럼 전체 1인 가구의 높은 피해율이 모든 세부 유형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1인 가구의 구별 필요성을 의미하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범죄피해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가 1인 가구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1인 가구의 범죄피해 영향요인은 구별된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개인 및 가구관련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2인 이상 가구(원)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1인 가구에서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면, 지역특성이 개인 및 주거침입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2인 이상 가구(원)에서는 나타났으나 1인 가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보호력은 1인 가구를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분석한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았고 2인 이상 가구에서만 유의했으나, 1인 가구를 구분하여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인 1인 가구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활용한 모형으로 분석모형을 구성하지 않고, 선행연구에서 밝힌 범죄피해의 영향요인이 1인 가구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분석모형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어 후행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였던 1인 가구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질적인 1인 가구의 특성을 발견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피해율에서 청년 1인 가구의 피해율은 8.4%로 성인 1인 가구(6.4%), 노인 1인 가구(3.2%)보다

월등히 높았다. 피해를뿐만 아니라 성별구성과 교육수준 등의 개인특성과 가구소득과 주거형태, 가구의 방법수준과 방법활동 등 가구관련 특성에서도 유형별 1인 가구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노인 1인 가구’는 여성가구의 비율과 학생과 주부, 무직자 등 직업이 없어 기대되는 개인소득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노인 1인 가구’는 자택소유의 비율은 72.8%로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았지만, 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방법장치와 감시기능의 개수로 측정한 방법수준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아, 주거형태에서 오는 보호력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유형별 1인 가구의 구별되는 특성들 중에서,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피해율과 33세 이하의 여성 1인 가구의 높은 범죄피해 가능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청년 1인 가구’는 ‘노인 1인 가구’와 함께 우리의 1인 가구를 대표하는 두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필요성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이영행(2010:34; 박성훈, 2011에서 재인용)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비율이 25-29세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70-75세에 다시 증가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려하여 1인 가구 연구는 29세 미만의 청년층 또는 70세 전후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박성훈(2011)에서도 1인 가구를 크게 2-30대의 젊은 미혼집단과 배우자와 사별한 70대 이상 고령자의 두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로 이들의 높은 피해가능성과 구분되는 특성을 밝혔다. 특히,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전체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2.276배, 주거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무려 11.226배 높았으며, 이는 성폭력 피해(강간과 성추행)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에 따른 취약성 차이는 성인이나 노인 1인 가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주거형태로서의 아파트/오피스텔의 주거침입범죄 보호력은 청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34-65세의 ‘성인 1인 가구’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구범죄피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한국적 맥락에서 주거형태(아파트 및 오피스텔거주)가 가구범죄피해의 예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공통적

으로 주장하였다(김지선·주익현, 2015; 박성훈, 2011). 이 연구에서도 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성인 1인 가구’는 다른 주거형태에 비해 주거침입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무려 86.2%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적 맥락에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가지는 주거형태의 강력한 보호력을 한 번 더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오피스텔의 보호력이 ‘청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 즉, 현재 우리의 1인 가구의 대표적인 두 형태이자 상대적 취약성이 더 높은 두 유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청년과 노인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각각 31.5%와 25.5%로 성인의 37.7%보다 낮았다. 이러한 발견은 아파트/오피스텔의 보호력이 가구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후행연구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1인 가구의 분류 및 이들의 범죄피해 위험요인 혹은 범죄피해를 설명하고자 시도한 연구가 없어 이 연구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1인 가구를 분류하였고 개인 및 가구피해의 일반적인 영향요인이 1인 가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형식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1인 가구의 대표적인 구별기준인 경제적 속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실증적 선행연구와 이론들에서 다루지 못한 1인 가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취약성 인식이나 회피행동이 피해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오히려 범죄피해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과 사회적 결속이나 취약성 인식 수준이 실제로 다른 특성변수의 영향으로 인한 것일 수 있음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다만, 범죄학의 개인이나 가구피해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희박하였다는 점과, 연령을 기준으로 1인 가구를 구분해보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앞으로 보다 정교화된 분석모형의 구성이나 1인 가구의 유형분류,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훌륭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은경·최수형·박정선.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황지태·황의갑·노성훈. (2013).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주익현. (2015). 가구범죄피해의 발생과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 3회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 권주안·이유진·최혜경. (2007). 1인 가구 주택수요 전망 및 공급활성화 방안, 주택 산업연구원.
- 박성훈. (2011). 한국의 도시지역 범죄피해의 지역적 맥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변미리·신상영·조권중. (2008).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 신은진·안전혁. (2010). 소득별 1인 가구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시 거주 직장인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5(4), 69-79.
- 성영애. (2013).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본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패턴. 소비 자학연구, 24(3), 157-181.
- 성지미·이윤정. (2001).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대 한가정학회지. 39(2), 111-130.
- 심영. (2002).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97-208.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규모 축소 가능성 진 단. KB 경영정보리포트 2012(4). 서울: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최수형·김지영·황지태·박희정. (2015).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www.kostat.go.kr

- Bursik, R. & Grasmick, H.G. (1992). Longitudinal neighborhood profiles in delinquency: The decomposition of chang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8: 247-263.
- Cohen, L. E. and Cantor, D. (1981). Residential burglary in the United States: Life-style and 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victim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8: 113-127.
- Cohen, L. E.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 Cohen, L. E., Cantor, D., & Kluegel, J. R. (1981). Robbery victimization in the U.S.: An analysis of nonrandom event. *Social Science Quarterly* 62: 644-657.
- Cohen, L. E., Kluegel, J. R., & Land, K. C. (1981). Social inequality andpredatory criminal victimization: An exposition and test of a formal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505-524.
- Ennis, P. H. (1967). Criminal victim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 report of a national survey.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Lauritsen, J. L. (2001). The social ecology of violent victimization: Individual and contextual effects in the NCV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7: 3-32.
- Miethe, T., & McDowall, D. (1993). Contextual effects in models of criminal victimization. *Social Forces*, 71: 741-749.
- Miethe, T. D. & Meier, R. F.(1994). Crime and its social context: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offenders, victims, and situations.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Miethe, T. D., Stafford, M. C., & Long, J. S. (1987). Social differentiation in criminal victimization: A test of routine activities/lifestyle the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184-194.
- Repetto, T. A. (1974). Residential Crime. Ballinger.

- Rountree, P. W. & Land, K. C. (2000). Generalizability of multilevel models of burglary victimization: A cross-city comparison. *Social Science Research*, 29: 284-305.
- Sampson, R. J. (1987). "Communities and crime." pp. 91-114. in Gottfredson, M. R. & Hirshi, T.(eds.), *Positive Criminolog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 Sampson, R. J. & Groves, W. B.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774-802.
- Swaroop, S. & Morenoff, J. D. (2006). Building community: the neighborhood context of social organization. *Social Forces* 84: 1665-1695.
- Wilcox, P., Madensen, T.D., & Tillyer, M.S. (2007). Guardianship in context: Implications for burglary victimization risk and prevention. *Criminology*, 45: 771-803.
- Xie, M., & McDowall, D. (2008). The effects of residential turnover on household victimization. *Criminology*, 46: 539- 575.

Crime Victimization among One-person Households

Kang, Ji-hyon*

This study examines victimization of one-person households. Personal-level and household-level data were merged from 2012-2014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KCVS) for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one-person households show higher rate of victimization compared to other types of households. Risk factors of personal victimization show differences between one-person households and other types of households, neighborhood context effect were not significant on one-person household victimization. For household victimization, previous studies confirm the positive impact of living in apartment as dwelling type against victimization, but this was not found for those living alone when we treat the single-person households as one group. In addition, neighborhood-related factors were not significantly affect on the chance of household victimization for one-person households.

Considering the diverse and dissimilar subcategories of single-person households, comparison between different types of them are examined.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that of young adults show significantly higher rate of victimization than middle-aged and older-adults ones. In additions, risk factors for victimization are different between young adults,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 particularly for sex and dwelling type as apartment. Given the steep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Korea,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risk factors of victimization for single-person households considering the dissimilar types, but the sub-categorization is based on lifestages which is only one proxy to differentiate diverse single-person households.

*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School of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Ulsan

❖ Keyword: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KCVS), one-person household, victimization, the elderly living alone, young adults single households